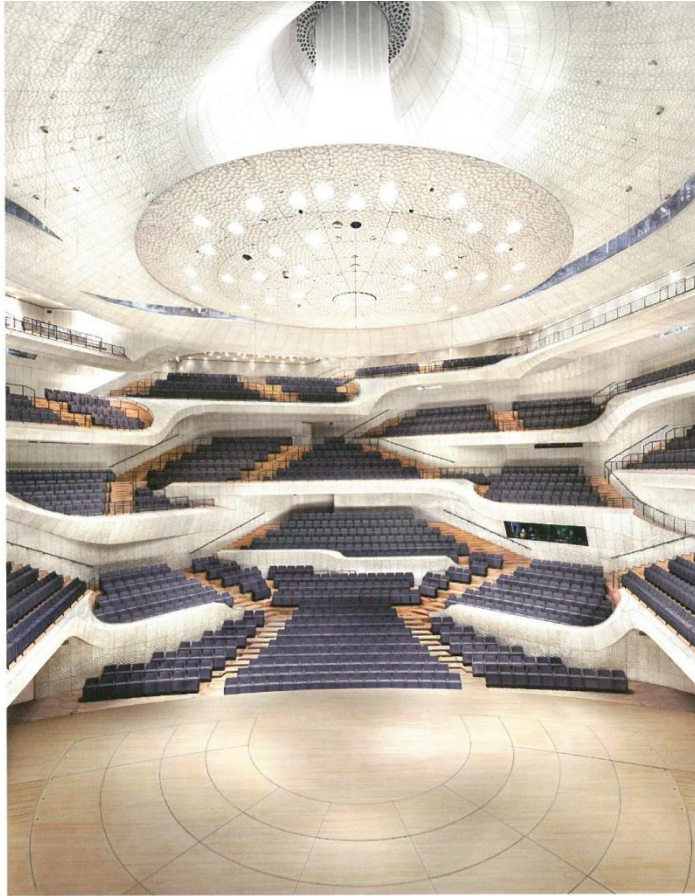


칸디다 회퍼 깨달음의 공간들

August, 2018 | By Editorial

TREND 7 18



Courtesy Candida Hofer and Kukje Gallery

GALLERY

칸디다 회퍼, 깨달음의 공간들

독일 사진가 칸디다 회퍼는 공적 공간, 즉 많은 이가 찾고 사용하는 공간들을 촬영한다. 그의 카메라는 사용자의 자취를 겨냥하지만, 프레임 안에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다. 공간의 상세한 디테일, 기형 사물의 배치와 낡음의 상태만으로 사용자의 존재를 말해 주기 때문이다. 칸디다 회퍼는 사람이 배제된 공간의 모습을 끊임없이 건조하게 담는다. 구도는 사진 놀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인공적인 보조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의 눈으로 재탄생한 공간은 설계 당시 계획한 공간의 좌우 대칭이나 벽면의 장식이 두드러지며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뒤셀도르프아카데미 출신으로 토마스 스투르트, 안드레아스 쿠르스키 등과 함께 현대사진의 한 분파를

이끌어 가는 칸디다 회퍼. 그는 1970년대부터 다양한 공공 장소의 내부에서 시작해 로댕의 '칼레의 시민들'같이 특정 예술품이 전시된 장소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작업의 반경을 넓혀왔다. 국제갤러리를 통해 한국을 찾은 것은 네 번째. 8월 26일까지 열리는 칸디다 회퍼의 개인전은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촬영한 '공연장' '도서관' '미술관'의 내부를 보여 준다. 세 공간 모두 인간의 문화 활동이 열리는 곳이어서 전시 제목은 <깨달음의 공간들>이다. 유럽의 여러 오페라하우스, 에르미타주미술관, 보르헤스의 서가 등 인류의 심미적 지적 욕망을 채워 준 장소들을 그만의 긴 호흡으로 담아냈다.

문의 [www.kukjegallery.com](http://www.kukjegallery.com) 02-3210-9872

MAGAZINE O AUGUST 2018